

“청춘, 진짜 어른을 만나다!”

— 씨앗기부자 곽성희 교수와 롤모델 조주연 박사의 청춘을 위한 특별한 동행



➔ 곽성희 교수와 조주연 박사

우리는 어떤 어른일까?

생물학적으로 나이를 먹고 어른으로 불리기는 쉽다.

하지만 나이를 먹는다고 진짜 어른이 될 수 있을까?

최근 종영한 한 드라마에서 세상의 무게에 눌려 어른을 불신하던 청년이 주인공을 향해 던진

‘진짜어른’이라는 대사가 한동안 화제가 됐다.

오늘의 청춘에게 진짜어른은 과연 어떤 어른일까?

여기 청춘이 있다. 만 18살을 지나는 봄, 살던 보육원을 떠나

주거부터 생계, 학업까지 혼자만의 힘으로 오롯이 삶을 책임지며 홀로써야 하는,

민법상 성인도 아동법상 아동도 아닌 경계에 선 청춘!

누구보다 무거운 어깨로 봄을 시작하는 보육원퇴소청소년들의 자립에

‘짐’이 아닌 ‘힘’을 실어주는 어른, 진짜 어른들의 동행을 오늘 아름다운가게가 따라 나섰다.

#1. 농부를 만난 씨앗기부자



➔아름다운가게보육원퇴소청소년 자립지원사업은 2010년 광성희 교수가 ‘아름다운가게관악자명점’테마매장 씨앗기금 1억 6천만 원을 기부하면서 시작됐다. 5월의 화창한 봄날, 광성희 교수와 아름다운가게는 씨앗기부의 매개가 된 특별한 인연 조주연 박사를 만나기 위해 순천으로 향했다. 조주연박사는 자신이 살던 군산후생원을 퇴소한 후 배들에게 주거공간을 마련해주고 꾸준히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

“농부 조주연입니다.”

순천행의 주인공, 조주연 박사가 내민 명함엔 ‘농부’라고 소개되어 있었다.

Q> 산부인과 의사선생님이시라고 들었는데, 농부라고 쓰여 있네요?

조주연 박사(이하 조주연): 은퇴한지 4년이 되어갑니다. 농사일은 처음이라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씨를 뿌리고 정성껏 키운 작물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 참 자랑스러워요. 낙향한 지 꽤 됐는데 오래 전에 했던 작은 일을 기억하고 전화 주셔서 놀랐습니다.

광성희 교수(이하 광성희): 뵙고 싶었어요. 처음 보육원퇴소청소년 자립지원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보육원 봉사활동을 하던 친언니를 통해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을 퇴소해야 하는 청소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였어요. 그 무렵 차병원에 재직하시던 조주연 박사님이 보육원을 나와 갈 곳 없는 아이들을 위해 주택을 매입해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대학등록금도 꾸준히 지원하신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큰 감동을 받아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었죠.

조주연: 저는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보육원 출신이거든요. 학비 때문에 중학교를 못 다닐 뻔 했는데 군산의 한 야간중학교에서 전교1등을 하면 전액 장학금을 준다더군요. 새벽에 신문 돌리고 낮에는 밭일을 하면서 야간학교를 다녔어요. 다행히 전교 1등을 해서 중학교를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 고등학교 진학은 포기했지만 검정고시로 고교과정을 마치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

격했습니다. 그때 등록금이 없어 참 막막했는데 제가 살았던 군산 후생원 원장님이 등록금을 마련할 길을 백방으로 알아보다 마감 2시간을 남기고 유한양행 유일한 회장님을 찾아갔어요. 놀랍게도 이야기만 전해 듣고 유일한 회장님이 등록금을 선뜻 내주셨어요. 그때부터 내내 보은을 하고 싶었어요.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으니 남을 돕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곽성희: 그 보은을 아이들에게 다시 돌려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처음엔 유일한 회장님이 박사님을 도우셨고 박사님이 또 여러 아이들을 후원하셨으니, 한 사람의 도움이 사회에 가져온 파급효과가 이토록 큰 거잖아요. 변호사였던 부친 역시 어렵게 공부한 경험이 있으셔서 등록금이 없어 대학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입학금을 지원하셨어요. 그렇게 도움 받은 이들이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시 환원해 또 누군가를 돕게 된다면 파급효과가 대단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뜻을 잇게 됐고요. 사람을 통해 문화가 바뀔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 전 차병원 산부인과 박사 조주연 님, 현재는 자신을 ‘귀촌농부’라고 소개한다.

Q> 곽성희 이사님께서 아름다운가게에 씨앗을 심어주셨고 거기엔 조주연 박사님의 영향이 있었기에, 이런 게 ‘나눔씨앗’이구나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 동안 해 오신 또 다른 나눔도 소개해 주시겠어요?

조주연: 의사는 수입이 안정적이잖아요. 적은 월급 쪼개 남을 돕는 분들도 많으신데 딱히 소개할 것까지 있을까 싶습니다만... 제가 있던 군산 후생원에 컴퓨터실을 만들고 장학금을 지원한 게 시작이었습

니다. 대학에 들어간 후생원 아이에게 등록금 외에 가장 필요한 걸 물었더니 지낼 곳이 없다고 해서 보육원을 나온 아이들이 지낼 집을 ‘군산 우리집’이란 이름으로 마련하게 되었고요. 유한대학교 학생들과 어린 시절 제가 신문배달을 했던 신문사의 배달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도 보은의 일환이었어요. 기부라기보다는 은혜 갚은 겁니다. 광성희 이사님처럼 도움 받은 적이 없어도 기부하시는 분들이 훌륭하시죠.

광성희: 후원에 선뜻 참여해주시는 분들을 비롯해 많은 분들의 은혜를 지금도 입고 있는 걸요. 저 역시 모교인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재직 중인 숙명여자대학교 장학금 나눔부터 시작했어요. 기부는 돈 많은 사람이 큰 금액으로만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소액정기기부자도 꾸준히 늘고 있고, 아름다운가게의 물품기증이나 재능기부처럼 금전적인 기부 외에도 다양한 기부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요. 저도 재능기부 단체인 ‘터치’를 통해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과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열고 음악대학 진학을 돕고 있습니다.

사실 인터뷰가 망설여지는 부분도 있지만, 제 인터뷰 내용을 보았다며 보육원 아이들을 위해 입법제안을 해달라는 요청도 있고 정기기부의를사를 밝혀주신 분들도 있어요. 아직 보육원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사업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이 인터뷰를 보고 또 다른 기부자가 되실 수도 있을 테니, 요즘은 인터뷰에 흔쾌히 응하게 됩니다.



➔좌: 2002년 아동복지증진에 대한 공로로 받은 대통령 표창/ 우: 조주연박사 자택에서 자서전 ‘나는 강물 되어’를 들고 있는 광성희 교수와 함께

#2. 보육원퇴소청소년의 자립에 날개를 달아줄 브랜드, 짝을 틉우다.

Q>아름다운가게보육원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사업을 통해 기대하는 변화가 있으신가요?

광성희: 앞으로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친구들이잖아요. 보육원을 벗어나 사회에 첫 발을 딛게 된 시기에 보다 적합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 지원해 주고 싶어요. 지금까

지는 학비와 주거비, 긴급생계비 등 금전적인 지원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좀 더 큰 틀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싶은 바람이 있어요.

최근에 아름다운가게에서 대학진학을 돕는 공부방 프로그램을 새로 시작해 정말 반갑게 생각해요. 별도로 가정적인 부분의 ‘생활 멘토링 프로그램’도 제안하고 싶어요. 아이들이 일상생활 경험이 없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더라고요. 조주연 박사님께서 ‘군산 우리집’을 운영하실 때 경험을 듣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아이들을 위해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할 부분들을 의논하고 싶어서 만남을 청했어요. 보육원 생활도 아시고 또 지원도 해보셨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함께 고민해 보면 시너지 효과가 생기지 않겠어요?

조주연: 맞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은 가정을 경험하지 못하다보니 일상생활에 취약해요. 가정생활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일괄급식을 하고 계획된 일정에 맞춰 행동하다보니 일반 가정의 아이들보다 수동적인 교육을 받게 되죠. 일상생활을 경험하도록 가이드해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대신 지속성이 있어야 해요. 일회성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관리될 수 있어야죠.

곽성희: 지속가능한 지원은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 대학 진학을 하더라도 등록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쳐 나가야 할 게 많거든요. 집값, 생활비를 모두 혼자 충당하려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죠. 금전적인 부분뿐 아니라, 정보가 없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적성에 맞는 취업교육 정보나 문화예술 분야의 특화된 수업이라든가, 아이들이 자립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보다 다각적인 맞춤형 정보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아이들 스스로 더 많은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도록 이끌어주어도 좋겠죠.

조주연: 군산 우리집을 하면서 안타까웠던 부분 중 하나가 지속적인 맞춤형 가이드였어요. 개인이 해주기엔 한계가 있거든요. 돈도 중요하지만, 관리자의 중요성은 정말 커요.

곽성희: 그런 점에서 아름다운가게는 전문적인 인력이 있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어요.

이수정 모금팀장(이하 이수정): 아름다운가게는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지도해주는 자립담당 선생님을 통해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신청 받아 지원하고 있어요. 후원금을 자립담당관 선생님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면 지속적인 집중관리가 가능하거든요.

곽성희: 아이들이 참 착해요. 지원 사업을 하면서 꼭 지켜봤는데 어른들이 조금만 케어해 줘도 정말 열심히 귀 기울이고 프로그램을 잘 따라와요. 집을 옮기거나 큰 결정을 할 때도 자립담당선생님한테 꼭 연락해서 의논하고요.

그 또래엔 잠깐 사이에 본의 아니게 사고에 엮일 수도 있고 편견 때문에 몰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순간에 손을 마주 잡아 주는 게 어른들 몫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뜻하지 않게 사회적으로 내몰리게 되는 건 좋지 한 장 차이거든요. 그 한 장의 차이까지 고려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조주연: 군산 우리집을 운영할 때 퇴소한 아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기초적인 부분은 마련했었지만, 보

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싶은 아쉬움이 늘 남아있었어요. 말씀을 들으니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 할 앞으로가 무척 기대됩니다.

Q>보육원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향후 계획이 있으세요?

곽성희: 보육원퇴소청소년 자립지원사업의 <브랜드네임>을 조만간 공모하려고 해요.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업의 필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말이죠. 그 전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현장 목소리도 더 많이 듣고 싶습니다.

조주연: 군산우리집이 오래 되어 리모델링도 필요하고 주변여건도 달라져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빈집정비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 10월까지 군산시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후 쓰임새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진작 아름다운가게를 만났다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갔을 텐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육원퇴소청소년 자립지원 테마매장이 궁금하네요. 보육원퇴소청소년 자립지원에 수익을 전액 기부할 수 있다고요?

이수정: 네. 아름다운가게 매장 가운데에는 테마매장이라는 특별한 매장이 있습니다. 보육원퇴소청소년 자립지원을 테마사업으로 하는 1호 테마매장 관악자명점은 2010년 4월부터 지원을 시작했어요. 첫째 수익금이 1800만 원 정도였고 학비지원을 시작으로, 생계비와 주거비까지 배분해 지난해엔 23명의 아이들에게 5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1억 6천 700만원을 배분했구요. 올해 3월에는 곽성희 이사님과 함께하는 후원이사 멤버 9분이 3년간 기금 1억 5천을 모아서 2호 테마매장인 남성역점을 개장했어요. 매장적립금도 배가 되었고, **개인 및 기업, 단체의 뜻있는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4개 보육원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범위도 확대하고 기금 규모도 늘려서 더 많은 아이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조주연: 아름다운가게가 사업을 해서 수익을 좋은 일에 쓴다는 건 어렵듯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짜임새 있게 일을 하는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을 알고 나니 더 믿음이 가네요. 이런 사업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꾸벅)

곽성희: 저희가 더 고맙습니다. (맞절에 일동 웃음)



➡아름다운가게보육원퇴소청소년 자립지원 테마매장에 대해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듣는 조주연 박사



➔ 선물로 드린 홀로서기청소년 응원배지, 홍익대 미대생들이 본 프로그램의 기금마련을 위해 특별히 만든 기부상품이다.

조주연: 개인적으로 보육원에 가게될 아이들 수가 줄도록 가정붕괴를 막고 싶어요. 가정의 건강은 사회의 근간이 된다고 생각해요. 일시적인 후원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가족상담과 같은 지속적인 AS를 제공하고 계속 추적해 논문로 남긴다면 분명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화된 데이터를 만들어두면 나중에 우리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테니까요.그런 의미에서 보육원 아이들의 문제는 보육원이란 장소에 특정될 게 아니라 모든 가정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곽성희: 우리가 또 챙겨봐야 할 문제를 제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주연: 함께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연구하면 참 좋겠어요. 돈은 쓰이는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죽어서 10년만 지나보세요. 명예나 재산은 하나도 중요하 지 않아요. 아름다운가게라면, 돕는 사람도 보람 있고 아이들에게도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제안해 주실 것 같은 데요?

곽성희: 중요한 지적이세요. 저 역시 아름다운가게에 테마매장을 기증한 이유 중 하나가 제가 후원하고자 하는 곳에 수익금이 쓰일 수 있고 무엇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운영하는 점에 신뢰가 갔기 때문이거든요.

Q> 반갑고도 큰 숙제를 주셨네요. 효율적이면서 현실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지원금이 쓰일 수 있게

연구하겠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 두 분의 기부철학이 궁금해지는데요?

조주연: 현실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선한 원칙을 바로 세우고 나면, 세부적인 부분은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끊임없이 바뀌죠. 과거엔 아들을 선호했지만 지금은 딸이 귀하잖아요. 사고방식부터 요즘 아이들 시선에 맞춰 바뀌야 해요. 저희 때 기준을 요즘 아이들에게 적용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한 현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곽성희: 나눔을 할수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싶다는 목마름이 생겨요. 오늘 박사님을 뵈는 것도 현장을 공부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Q> 보육원을 퇴소해 사회에 첫발을 딛는 청춘들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을 해 주신다면?

조주연: 당장은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인 사람은 없어요. 주위를 둘러보면 친구들, 동료들이 있고 언젠가는 가정도 이루게 될 거예요. 사람이 국영수 지식이 부족해 불행해지는 것보다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을 몰라 소통이 없어지고 관계가 벌어지는 게 매일의 불행을 낳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각자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인정했으면 해요.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보육원에 들어가게 되는 아이들도 조금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가정이 건강하다면,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별을 제외하고 소통 부재에서 오는 이별은 줄일 수 있을 테니까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신청하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모든 삶은 가치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었으면 해요. 의사에게서 성공한 면만 보지만 사실 뜻대로 안 되는 일과 매일 부딪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생명이 죽고 사는 일이 인간의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때마다 삶에 대해 숙연해집니다. 당장이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스스로 삶을 가치 있게 여기고 보람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보육원 출신으로 신문배달을 하며 야간학교에 다니던 아이가 자라서 수많은 생명을 살린 의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곽성희: 맞는 말씀입니다. 박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으니 저는 와 닿는 강연의 구절을 소개하는 걸로 조언을 대신할게요. ‘해리포터’의 저자조앤 롤링이 하버드대학교에서 한 강연인데요. 조앤 롤링은 세상을 바꾸는 데 마법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 내면에 두 가지 힘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실패의 미덕’을 첫째로 꼽았어요. 해리포터를 집필할 무렵 조앤 롤링은 이혼녀에 실업자였고 가난까지 닥쳐 누가 봐도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닥까지 곤두박질 친 시간을 이겨내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죠. 조앤 롤링은 실패를 겪으며 강인해진 시간은 어떤 자격증이나 타이틀보다도 가치 있는 소득이라고 자부했습니다. 현재 조앤 롤링은 세계에서 가장 인세를 많이 받는 작가로 유명하죠.

조앤 롤링이 말하는 세상을 바꿀 두 번째 원동력은 자신이 직접 겪지 않아도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돕는 힘, 바로 상상력이에요. 타인의 삶을 상상하고 나눌 수 있다면 세상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잖아요.

조앤 롤링처럼 우리 친구들도 보다 유연한 시각으로 다르게 보고 꿈을 키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현실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겨내려는 의지죠. 꼭 필요한 부분은 당당히지원해 달라고 신청하세요.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겨내느냐는 내 태도에 달려 있다는 걸 알았으면 해요. 박사님이 당당하게 환경을 극복하신 모습, 참 멋지잖아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롤 모델이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 은퇴 후에도 조주연 박사의 하루는 바쁘다. 발농사를 하는 틈틈이 유튜브를 보며 공부를 하고, 시간을 쪼개 배운 장구, 하모니카, 아코디언, 색소폰 등 악기 연주 실력은 어느새 수준급. 연주를 부탁한 일행에게 노을 속에서 멋들어진 색소폰 선율을 선사 해준 노신사의 열정은 어떤 젊음보다 활기 넘쳤다.



(색소폰을 부는 조주연 박사님- 음악가들에게 참 감사해요. 멋진 선율을 만나게 해줘서...)

차창 밖에 어둠이 내리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아침 8시부터 시작된 빠듯한 일정이었지만 곽성희 후원 이사의 얼굴엔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시종일관 소녀 같은 설렘과 즐거움이 가득했다. 어둠을 뒤로한 채, 새롭게 전개할 보육원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사업의 브랜드네임 공모에 쓸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소녀의 모습은 아름다웠다.



* 오늘도 현재진행형인 두 분의 꿈에 동행한 봄날의 여행길, 참 행복했고 고맙습니다!

진행> 모금사업팀 이수정

사진> 나눔사업팀 신한결

글> 모금사업팀 이수연